

메타버스의 관리

스위니는 메타버스가 상당 부분 독립적인 개발자들에 의해 구축되기를 원하며, 메타버스에서 애플과 구글과 같은 거대 기업들의 요구하는 플랫폼 사용료가 독립된 개발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과 창조 행위를 막을 것이라고 우려한다.

애플은 애플 생태계 내에서 발생하는 결제들에 대해 오로지 애플의 결제 처리 시스템을 통해서만 진행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왔다. 그래서 에픽게임즈가 다른 결제 시스템을 통해 애플의 30%에 달하는 결제 수수료를 우회하기 시작했을 때, 애플은 포트나이트 앱을 앱스토어에서 제외시켜버렸다. 스위니는 이에 대해 자사의 모바일 운영체제에 대한 불공정한 제재를 사유로 애플을 고소했다.

올 9월 미국 지방법원은 애플을 독점으로 규정하지 않았고, 에픽게임즈에게 애플에 30%의 결제 수수료를 갚으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애플 또한 개발자들이 만든 앱에 대해 애플 결제 시스템 외의 여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은 것은 캘리포니아 주의 경쟁법 위반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애플은 그들의 플랫폼에서 대체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금지될 수도 있다. 스위니는 애플 뿐만 아니라 구글에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스위니는 애플과 구글이 자신들의 생태계 사용을 강제하여 수수료로 폭리를 취하고 있지만, 정작 개발자들의 편의나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애플과 구글은 정말로 기여한 바가 없었을까? 미 지방법원 판사 로저스의 말에 따르면 그렇지 않다. 곤잘레스 로저스는 법정 공판에서 에픽게임즈에 "귀사의 주장은 고객들이 생태계를 선택하는 행위를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구매자, 소비자에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특정 종류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애플의 사업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애플과 애플의 소비자 사이의 자발적인 거래를 강제로 막는 것은 소비자들 스스로가 선택했던 생태계를 파괴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에픽게임즈와 스위니에게는 애플 생태계를 사용할지에 대한 선택권은 있었다. 게다가, 애플과 구글은 자신들의 플랫폼과 생태계,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 보수하고 개선하며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메타버스는 흥미로운 미래지만, 앞서 본 바와 같이 플랫폼 보유사가 개발자에게 특정 방식을 강요하거나, 개발자가 플랫폼을 사용하면서 플랫폼의 규정을 회피하는 문제가 지속 발생할 것이다. 결국 메타버스 내 소비자와 생산자들 간의 자발적 합의에 따른 규정 수립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번역: 이재기

출처: <https://fee.org/articles/fortnite-creator-tim-sweeney-wages-legal-battle-against-apple-and-google-over-his-egalitarian-vision-for-the-coming-virtual-metaverse/>